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주간충현」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내가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
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시편 89편 1절)

1989년도 『제자훈련』 9월7일부터 실시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 남 · 여 서리집사 · 권찰 · 교사 · 찬양대원
'90년 신입임직자 후보전원 평신도중 제자훈련을 받기 원하는 자
8월1일부터 신청서 접수, 등록비 5천원

교회는 1989년도 「제자훈련」을 실시한다.

금년도 주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이며,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차에 걸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23시간을 총현기도원에서 합숙하며 훈련을 받는다.

신임 임직자는 반드시 「제자훈련」을 받아야 하며, 금년도에는 직분자 이외에 일반 평신도에게도 문호를 개방,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제자훈련에 따른 훈련개요, 실시일정, 훈련프로그램, 진행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총현훈련원 조직

훈련원장: 이종윤 목사
지도: 이조웅 전도사
원감: 오진국 장로
부원감: 오정현 장로
교무처장: 김재명 장로
행정지원: 이종국 장로(행정과장)
전행교사: 생략
전행책임교역자: 전교역자가 순차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한다.

훈련개요

1. 목적

홍해작전, 여리고작전 그리고 시온성 대행진을 통하여 깨우친 영적 각성을 사명감으로 고취 함양하여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원리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제자로서 헌신하는데 있다.

2. 주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1) 주제성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2) 주제찬송: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시라”

3. 훈련대상자

(1) 직분자 전원(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 · 여 서리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 '90년 신입임직자 후보전원)

(2) 평신도 중 제자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자

4. 훈련기간

(1) 1989년 9월 7일-11월 17일(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2) 찬양대원은 1989년 10월 2일-3일, 5일-6일에 실시

(3) 평신도: 1989년 11월 16일-17일

5. 훈련장소: 총현기도원

6. 훈련참가 신청: 신청서 양식

(1) 접 수 처: 소석관 103호(총현제자훈련원)

(2) 등 록 비: 5,000원(총현 훈련복 별도 판매-8,000원)

(3) 신청일자: 1989년 8월 1일-9월 3일

7. 특기사항

직분자는 반드시 총현제자훈련을 받아야 하며 새해(1990년) 직분자 임명은 가능한 본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훈련프로그램<1>

첫째날

오전 6:30분까지 교회 집합

6:30- 7:15 45분 저녁식사, 명찰, 훈련복 지급

7:15- 7:30 15분 인원점검, 오리엔테이션

7:30- 7:40 10분 승차 및 출발

7:40- 8:30 50분 기도원 도착

8:30- 8:50 20분 숙소배정, 정리정돈

8:50- 9:10 20분 찬양-양장근 전도사

9:10- 9:50 40분 저녁집회 “영적각성” 김학진 목사

9:50- 10:50 60분 방별기도회 및 친교(간식)

10:50-11:00 10분 세면

11:00-11:10 10분 정리정돈 및 짐호

11:00- 취침

둘째날

오전 5:00- 5:20 20분 기상 및 세면

5:20- 5:40 20분 새벽기도회-김광석 목사

5:40- 6:20 40분 산상 개인기도

6:20- 6:40 20분 체조 및 구보-김정연 집사

6:40- 7:00 20분 휴식

7:00- 8:00 60분 아침식사

8:00- 8:10 10분 찬양-양장근 전도사

8:10- 9:10 60분 강의(1) 주님의 영적교제-김해규 목사

9:10- 9:20 10분 휴식

9:20- 9:30 10분 찬양

9:30-10:30 60분 강의(2) 그리스도를 닮은 삶-송태근 목사

10:30-10:50 20분 친교의 시간(간식)

10:50-11:00 10분 찬양

11:00-12:00 60분 강의(3) 헌신과 섬김-김성윤 목사

*찬양대원훈련시-찬양대원의 사명의식

김두완 장로(영락교회)

오후 12:00- 1:00 60분 점심식사

1:00- 1:40 40분 공동체 훈련-훈련원감

1:40- 1:50 10분 휴식(간식)

1:50- 2:50 60분 강의(4) 지상명령과 증인-김영구 목사

*찬양대원훈련시-찬양대원의 헌신과 섬김

최시원 집사(음악감독)

2:50- 3:10 20분 찬양

3:10- 3:20 10분 기념사진 촬영

3:20- 4:20 60분 위임목사님과의 대화

4:20- 4:40 수료식

4:40- 4:50 20분 출발준비

4:50- 기도원 출발

훈련프로그램<2>

첫째날 1989. 10 / 8-9(6차)

오후 6:30까지

6:30- 6:50 20분 명찰, 훈련복지급, 인원점검, 오리엔테이션

6:50- 8:20 90분 주일저녁 찬양예배

8:20- 8:40 10분 승차 및 출발

8:40- 9:30 50분 기도원 도착

9:30- 9:40 10분 찬양

9:40-10:20 40분 저녁집회 “영적각성” 김학진 목사

10:20-11:00 40분 방별기도회 및 친교(간식)

11:00-11:10 10분 세면

11:10- 취침

제자훈련 실시일정

차수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날 짜	8월 24-25	9월 21-22 28-29	10월 2-3 5-6	10월 8-9 12-13 26-27	11월 2-3 9-10 16-17						
대 상	교역자	직분자	찬양대원	직	분	자	평신도				

진행 봉사 일정

월	일	봉사조	참 가 조	진 행 책 임 교 역 자
8	24-25	아론홀	1차(교역자)	이조웅전도사, 구명신전도사
9	21-22 28-29	아론홀	2차 3차	김동열 목사, 장영자 전도사 이세열 목사, 정연희 전도사
10	2-3 5-6 8-9 12-13 26-27	아론홀	4차(찬양대원) 5차(찬양대원) 6차 7차 8차	김익경 목사, 김주아 전도사 윤용규 목사, 장혜순 전도사 이세열 목사, 윤순화 전도사 이원길 목사, 임태주 전도사 윤용규 목사, 최명자 전도사
11	2-3 9-10 16-17	아론홀	9차 10차 11차(평신도)	김익경 목사, 김정자 전도사 김동열 목사, 정복인 전도사 이원길 목사, 현정남 전도사

장년3부 14회 수양회 14~15일, 갈릴리홀서

교회 학교 장년3부(부장 마성락 장로)는 제14회 여름 수양회를 8.14일부터 15일까지 본교회당 갈릴리홀에서 갖는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동 수양회에서는 장년기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본 수양회의 장사는 신복윤 목사, 윤영탁 목사이며, 장년3부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동 수양회 참가회비는 1인당 5,000원이며 8월 14일 오전 8:30분~9시까지 나오면 된다.

이종윤 위임목사의 수요일에 성경강해 시리즈⑤



본문 / 요 5:28-30

땅에는 변수와 상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일시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수는 영원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사 17:30-31, 롬 2:16)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악한 일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1. 육신의 죽음이 인간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에 죽는 날을 기다리셨습니다(마 16장).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죽게되면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이 인간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이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 흙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다만 목숨(푸시케)이 있을 뿐입니다. 죽으면 사라

만 1492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중요한 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할만큼 강대국이었는데 이 나라는 동전에 라틴어로 "그 너머에는 더이상 아무것도 없다"(no more beyond)라고 기록했습니다. 지중해 끝이 우주의 끝이고 지브롤타가 땅 끝이므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므로 자기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 그들은 앞에 있는 단어 no를 지워버렸습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저 너머에는 다른 것이 더 많이 있다"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후에 스페인 왕가의 가훈이 되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니 왕들이 세상이 전부인줄 알고 자신의 오만과 불손을 버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2. 무덤 너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입



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요 5:29).

"생명의 부활"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하셨으니 이 교리야말로 신앙교리의 꽃 중의 꽃입니다.

3. 두 길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4. 불신자들은 제길로 간 자들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 이 어떻게 지주를 하여 지옥으로 보내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항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구원받는다" 사랑의 초청을 하는데도 인생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제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제 길로 간 자"라 합니다.

인간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제 고집대로, 제 멋대로, 자기 원하는대로 하는 사람이 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사람이 구원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보니 욕심이 생기고 다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갈라 서기로 했는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롯이 있는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0인이 없습니다. "의인 45인을 찾으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45인이 없습니다. "40인을 찾으면 어찌하겠습니까?"

30, 20, 마지막에는 10인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10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 10인이 없어서 결국 소돔성도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은 인생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높이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것을 보지만 해도 다 낮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일부러 더 안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인생은 악심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한 분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의 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늘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5.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표현된 곳도 있고 낙원이라고도 했고 삼충천(고전 12:2-4)이라고도 표현했으나 다 같은 말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보니 산 밑에 평장한 집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궐 같다" 하고, 어떤 이는 "부자집"이라 하고, 어떤 이는 "고층 빌딩"이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후에 가는 곳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 천국입니다(고후 5:8).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잔치를 합니다(사 16:11, 17:15, 마 8:11).

천국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롬 8:18). 억울한 것이 해결되는 곳입니다(계 6:10).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계 7:15). 영혼이 쉬는 곳입니다(계 14:13).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입니다(계 22:4). 왕도룩하는 곳입니다(계 20:4).

6.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열락하거나 호의호식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후에 영생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기억하며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제 길로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머무는 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흠으로 창조된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한 존재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흠은 가죽이 썩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욥 19:25-26).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창 25:8). 이 말씀은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계층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에 아니고 어떤 곳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구약성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살피 보면 지옥으로 쓰여질 때도 있고 죽음을 말할 때도 있고 무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죽은 자가 가는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데스'(지옥)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상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지

가능합니다.

바울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 안에서"(in christ)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받아 새 영을 받았으므로 완전히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성화의 단계처럼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고후 5:17).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폐기된 인간은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심판의 부활이요 제주의 부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을 얻고 주님 없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난을 받게 될 테이니 주님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으로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듯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것은 모든 구약은 신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야기 거리가 아닙니다. 초점도 신약입니다. 10인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이 구원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 의인 한 분 까닭에 그 안에 있는

충천기도원 전화국번 ②국이 ④국으로 변경

본교회 기도원(경기도 광주 소재)의 전화국번이 지난 7월29일부로 변경되었다.

충천의 ②국이 ④국으로 변경되었으며, 번호는 전과 같이 4425, 4272번이다.

이용에 착오없기를 바란다.

차량관리부 봉사자 모집

본교회 차량관리부(부장/ 문홍구장로)는 동 부서에서 봉사할 신실한 성도를 다음 내용으로 모집하고 있다.

- 다 음 -

◎ 자격: 신체 건강한 본교회 소속의 세례교인

◎ 인원: 남·여 약간명(여자는 방송 안내요원임)

◎ 연락: 차량관리부(구내 478번)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위임목사는 지난 7월24일 출국하여 24~28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세계 신약학회, 그리고 7월29~8월2일까지의 세계목회신학회에 참석하여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목사는 8월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워싱턴 목회대회에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는 15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성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교구별 찬송가경연대회 세부계획 발표

합창 지정곡 446장 1절, 자유곡은 찬송가나 복음성가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 교회설립 36주년 기념 교구별 찬송가 경연대회가 오는 9월 3일(토) 오후 2시 갈릴리 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연대회 종목은 합창과 중창이며 지정곡은 446장 1절이고, 자유곡은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곡 중에서 1절만 부르면 된다.

여름계절학교 계속 진행

고등부·직전부 마쳐

지난 주간에는 고등부와 직장전도교육부가 수양회를 마쳤다.

고등부

교회학교 고등부(부장: 최무길 장로)는 제27회 하기 수양회를 지난 7월 31일~8월 3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개최했다.

「오직 깨어 근신할찌라」란 주제로 개최된 중수양회에는 교사, 학생 등 361명이 참석했으며, 주강사는 김광석 목사이다.

새벽집회, 특강, 이단연구, 말씀의 잔치, 그리고 철야기도회 등으로 진행된 수양회에서는 말씀, 은혜 찬양으로 청소년기의 믿음의 진보를 성숙시켰고, 캠프화이어를 통한 공감과 형성, 천로역정, 모의재판, 하늘운동회, 촛극대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직전부

교회학교 직장전도교육부(부장/ 박영식 장로)는 제13회 하기수양을 지난 8월 3일~5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했다.

“성숙으로 나아가자”란 주제로 1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주강사는 송태근 목사이다.

첫째날 부흥회는 박영식 장로 사회로 진행, 문우석 회장의 기도, 성경 요한복음 21장 15~17절 봉독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란 제목으로 송태근 목사가 설교했다.

동수양회는 경건의 시간, 기도회, 성경, 체육대회, 부흥회, 아침체조 등으로 진행되었다.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

성극경연대회 세부계획

▲명칭: 교회설립 36주년 기념 성극경연대회

▲일시: 1989년 10월 7일(토) 오후 1시(예선), 1989년 10월 8일(주일) 오후 3시(본선)

▲장소: 본당 1층 갈릴리홀

▲주관: 교육위원회 성극경연대회 준비위

성경연구원 학생모집

●제31기 교사양성부

1. 입학자격

(1) 충현교회에 등록된 자로 세례 받은 지 2년 이상 된 자(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제출)

(2) 만 20세 이상인 자

2. 입학절차

(1) 제출서류: 입학원서(성경연구원 소정양식) 1통, 증명사진 1매

(2) 원서접수 기간: 1989년 8월 13일(주

일)~9월 1일

(3) 접수처: 성경연구원(소석관 103호)

*등록비 2,000원

3. 교육기간: 1989년 9월 3일~11월 26일(총 13주)

●1989년 2학기 주간성경공부

1. 입학자격: 충현교회 전교인(타교인도 가능함)

2. 입학절차: 교사양성부와 동일

3. 교육기간: 1989년 9월 4일~11월 17일

다.

합창인원은 교구별로 60명~100명 선으로 구성되고 전교구가 빠짐없이 참가해야 하며, 중창은 지원하는 교구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동준비위원회는 교구별 찬양 연습장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각 교구별 연습장소는 다음과 같다.

▲ 1교구(나사렛홀), 2교구(할렐루야홀), 3교구(아멘홀), 4교구(호산나홀), 5교구(소석관), 6교구(소석관 205호), 7교구(베다니홀), 8교구(소석관 212호), 9교구(소석관 307호), 10교구(베들레헬홀), 11교구(소석관 314호), 12교구(소석관 201호), 13교구(소석관 407호), 14교구(소석관 414호).

춘천 성민교회

춘천 성민교회와의 자매결연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중·소 도시의 개척교회가 자립하기까지에는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느끼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어려움에 협력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나 중·소 도시의 청·장년 세대들이 그들의 생업에 따른 편의를 위해 점차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 상황에서 그러한 대다수의 청장년층의 가정이 모두 이동하는 것이 교회성장의 가장 큰 난점이며 거기서 유출되는 문제는 교회운영과 목회자의 경제적 곤란과 교회학교 운영에서 교사나 지도자가 거의 없는 것 등입니다. 무엇보다도 잃은 양 아흔 아홉 마리 보다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소중하듯이 그 허탈감 또한 짐작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교회들이 그러한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교회개척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인가를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 바울14지회가 춘천 성민교회를 지원.

진정한 자매결연의 의미와 그 실효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함을 절감하는 바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한 형제 자매로서 그들의 고충에 동참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그러한 기도 가운데 더 많은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과 사랑이 바로 우리와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와

지원교회 탐방

그들이 주안에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바울전도 14지회와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춘천 성민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충만하여 날로 성장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도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주소: 강원도 춘천시 후평 2동 810-12호

<춘천 성민교회>

전화: 51-9507

담임목사: 송종석

김점석 (집사·바울 14지회장)

정선 반천교회

7월 10일 이른 아침에 에스더 2지회에서는 여전도회 임원 6명과 김경철 장로를 모시고 산 구비구비 넘어 정선 반천교회를 방문하였다. 말만 들던 산골짜기를 구비구비 몇바퀴 넘어 들어가니 조그마한 동네가 시야에 들어



▲ 에스더2지회가 강원도 정선의 반천교회를 방문

왔다. 가호 85세대가 띄엄띄엄 떨어져 사는 동네 한가운데 반천교회가 위치하고 있었고 교인 세대수는 20세대에 77명 정도가 대예배에 참석하고 유년부가 1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

금년 5월 9일 목사임직을 받으신 이영재 목사를 만나서 그동안 지내왔던 일과 교회의 상황 설명을 듣고 있을 때에 사모님께서 강원도 토속음식인 감자떡과 빈대떡, 콩국수를 손수 만들어 오셨다. 너무나 반갑고 고마워서 7시간이나 차를 타서 멀미가 날 정도로 몸이 피곤한 것도 잊은채 우리 일행은 새 힘을 얻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많은 이곳에 계속하여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굳혀졌다.

참 잘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서울로 향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더욱더 기도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염숙현 (권사·에스더 2지회장)

미담

시온성 대행진을 끝맺고 디모데 10지회(회장/ 권영학 집사)에서는 교구내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학업 성적

디모데10지회 어려운 성도 자녀에게 장학금

권영학집사 본교회 직원에게 근무복 기증

이 우수한 학생에게 매월 장학금이라는 명목 하에 7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실시중에 있다.

본교회 3대 목표인 천국일군 양성과 맥을 같이한 장학금 전달은 디모데 10지회의 작은 일이나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후에는 더 많은 장학금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총 11주)

4. 특 전: 10학점(1학점은 15시간)

이수자에게 졸업시 성경교사 자격증을 수여

하며, 구역장자격을 인정함

5. 시간표 및 감사

	오전반(10:00~11:30)	오후반(7:00~8:30)
월	최선의 삶(I)/김주아전도사	
화	크로스웨이 성경공부(1-2) 이조웅 전도사	신명기/이원길 목사
수		마가복음(III)/오후1:00~2:00 김학진 목사
목	룻 기/김해규 목사	크로스웨이 성경공부(2-2) 김경철 전도사
금	창세기/새벽6:15~7:15 이중운 목사	

여전도회활동 이모저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저희 마리아1지회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7월24일 회장 한광숙집사와 부군 김신집사, 회계 송정순집사, 구제부장 강신순권찰과 함께 진화자집사를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지원교회인 육도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육도교회는 충남 보령군 오천면 효자2리 육도에 있으며 18세대가 사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우리 충천교회 전도위원회에서 육도교회를 지원교회로 마리아1지회에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육도교회가 세워진 것은 1년전 김진태전도사님이 서울 구의동교회 교육전도사로 계실 때 1988년1월1일 삼시도교회 목사님이신 아버님께서 오셔서 육도에 한 성도가 육지로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 육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응답으로 믿고 1988년1월1일 신혼인 전도사님 부부는 집을 싸들고 육도를 향해 떠났다고 합니다.

육도에서 주민의 뒷방을 빌려 예배를 드리

고 있었는데 주민이 성경, 찬송가를 가져다가 모조리 불태워서 온 집이 불타버리는 바람에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것과 4곳의 섬에

과 중담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90만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며 이루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에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방문을 위해 마리아1지회 회장님을 비롯해 물심양면으로 사람의 선물을 해주신 임원, 회원들 김신집사님, 정순경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정성으로 대접해주신 전도사님, 사모님, 김종분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25일 태풍주의보로 여객선이 달지 않아 마침 서울로 이삿짐을 싣고가는 여선을 타고 저희는 평안히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리아1지회에서는 오늘도 외로운

예배드릴 곳이 없어 빈터에서(지금 교회가 세워진 곳) 하나님께 부르짖어 예배당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던 중 서울 구의동에 있던



▲ 마리아1지회 임원들이 육도교회를 찾아가 부흥 발전을 위하여 기도했다.

방의 전세금을 받아 교회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도교회엔 성도 여덟 가정으로서 신자가 9명인 1년7개월된 교회이지만 "겨자씨와 누룩같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바랍니다.

육도엔 국민학교가 없어서 월도섬에 여선을 타고 국민학생들이 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김진태 전도사님은 육도에 있는 18세대가

선교할 수 있는 선교선(배)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제목을 주셨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마무리공사를

재벽과 중담 쌓는데 필요한 돈 120만원을 기도제목으로 주셔서 저희 마리아1지회가 기도해오던 중에 회장님을 비롯해 저희 임원, 회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건축헌금을 드린 90만원을 이번 방문 때 전달했더니 육도교회에선 마침 30만원 밖에 없어서 나머지 재벽

설 육도에서 28살의 젊음을 주님 위해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 내외분과 김종분 집사님(첫 성도)과 온 성도님, 그리고 모든 섬 주민이 미션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공: 전도부장 진화자 집사>

육도교회와 마리아1지회

육도 내의 18세대 복음화 위해 기도를! 이웃 인접한 4곳의 섬 전도위한 「선교선」필요

구역예배를 위한

충천다락방

1989년 8월 11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31과 성도의 교제

성경: 사도행전 2:42-47

요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찬송: 278, 499, 487장

1. 성도교제의 의미

성도의 교제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단순한 친목이나 오락을 말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사귀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일 1:3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권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와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제요 신앙 안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 지체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서로 나누며, 협력 봉사해야 교회의 부흥과 장성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함은 물론 성도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고 했습니다.

2.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고 기도하고 찬미하며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가 되고 신앙심으로 서로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아니되

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요 3:16-19) 물질이 풍족한 사람은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임을 알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행 2:45)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행 4:32)

3. 오늘날 우리의 교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하므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고 하였고, "말세에 통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딤후 3:1-2)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을 합하여 성도의 교제에 임해야 하며,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적인 것이라야 합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는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합시다.

1.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2.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교제를 가졌습니까?
3.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어떠해야 합니까?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시며 주님을 섬기는데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를 위해 매진 먼저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